

제약

16

2010년 의사 대상 지급 내역 공개 법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도전 과제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이제 의사와 병원에 대한 홍보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를 위해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솔루션

어느 세계적인 생물약제학 연구 기업에서는 IBM WebSphere ILOG BR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떤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지 판단하여, 해당 데이터를 추출 및 업로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기대 효과

- 보고 속도가 10만 배 향상되었습니다. (월 단위에서 분 단위로 단축)
- 현업 사용자들은 연방법 및 주법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업부에서는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제약회사들의 경우, 의사결정 준수와 관련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의사대상 지급내역공개법안(Physicians Payments Sunshine Act of 2011)은 기존 주정부 단위 의사결정에 일률적인 보고 기준을 수립하여 의사 및 일부 의료 사업자에 대한 지급 내역 보고 의무에 관한 수백 개의 새로운 업무 의사결정을 추가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메인, 미네소타,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아이오와 등 약 20개 주에는 이미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있거나, 각기 다양한 제정 단계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약 회사와 기타 생명과학 제조사는 50개 주 모두의 전체 지출 내역을 의료사업자별, 활동별 및 지출 유형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보고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일반 대중이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보고 요건의 이행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각 기업마다 판촉비(Promotional Spend) 지출 기록에 사용되는 보고 체계(CRM, 총계정원장, 소요 경비, 보조금, 임상실험비, 견본비 등)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파일들은 반드시 검증, 변환 및



정규화를 거쳐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수 또는 연합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 법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한 보고 기준을 동시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견본을 판촉비의 일부로 인정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어느 대형 제약회사에서는 IBM WebSphere ILOG BRMS 및 IBM 서비스를 통해 주 정부 보고용 데이터 추출하여 보고할 데이터의 결정, 업로드 및 보고서 작성 과정을 의사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IBM은 이 회사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향후 주 법규의 변경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 담당자들이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이 제약회사의 정보 시스템에 저장된 지출 데이터 파일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의사결정 관리 시스템이 회사의 모든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하나의 데이터 마트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야간 일괄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에 반영되고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10만 배 향상된 보고 속도

의사결정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 관리자들은 해당 연도의 보고서 준비에 1년 이상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지출 항목을 검토하여 정당한 지출인지 파악하고,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지루한 수작업 과정이었습니다. 현재는 직접 검토가 필요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고 과정이 몇 분 내에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의사결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주의 새로운 입법 사항과 법규 변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행은 컴퓨터 코드가 아닌 일상어 형태의 의사결정으로 표현되며, 관리자들은 강력한 편집 툴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관리, 추적 및 변경하고 있습니다.

판촉비 지출 관리의 효율 향상

이 제약회사는 IBM WebSphere ILOG BRMS 기반의 포괄적인 보고 시스템을 통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정제된 다음, 이 시스템을 영업 자동화 토대를 이루는 경영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서는 예산 한도를 준수하고 의사결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판촉비 지출을 사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들은 특정 의사 또는 기타 적용 대상 의료사업자들에게 지출된 금액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그 해 할당된 예산의 잔액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팀은 최적화 툴의 추가 도입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지출 형태(오피스 파티, 보조금 또는 견본품 제공 등)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들은 의사들이 작성하는 처방전과 각 의사의 진료 지역의 인구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의사결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 데이터를 취합하면, 영업 담당자들은 특정 의사를 특정 약물 판촉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고령층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일하면서 메디케어(고령자 및 장애우 보험)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처방하고 있다면, 그의 환자들은 메디케어 혜택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약을 이 의사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구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 메디케어 처방전에 없는 다른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를 겨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100만 달러 과징금 방지

끊임없는 변동이라는 보건 의료 규제 환경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총지출 솔루션은 보고 요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의사결정 관리 시스템의 또 다른 혜택은 논의 중인 새로운 의사결정이 임의의 주에 발효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판단하는 "What-If"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의사결정 준수가 해당 주의 의료 사업자들과 관련된 총지출 및 준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여줍니다.

현재 IBM GBS에서는 협업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IBM WebSphere Lombardi Edition 환경과 함께, 자사의 판촉비규제준수(Promotional Spend Compliance) 솔루션에 의사결정 관리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에서 의사대상 지급내역공개법안(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 of 2010)의 준수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BM WebSphere ILOG BRMS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객관화 및 관리할 틀을 제공해, 관리자들이 상기 법안에 해당되는 의사결정과 판단의 정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업데이트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며,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구성요소

- IBM WebSphere ILOG JRules
- IBM WebSphere Lombardi Edition

